

201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 (1) 제시문 (가)에서 ㉠이 ‘닫힌 세상’인 이유를 제시문 (나)의 ‘성공한 퓨전’과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안데르센의 우화는 ‘닫힌사회’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 준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으로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는 잘 알려져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연히 오리 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백조는 그의 다른 모습 때문에 엄마 오리를 제외한 모든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고 무시당한다. 그뿐 아니라 닭, 칠면조 등 제 잘난 맛에 사는 이웃들에게도 놀림감이다. 그야말로 자기 주위의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유 없는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통이다. 칠새인 기러기가 조금 동정심을 베푸는가 싶었는데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백조는 무리에서 떨어져 한 농가에 숨어든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고양이 한 마리, 암탉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리 알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할머니의 기대감 때문에 얼마간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 아니 아기 백조는 집안에 이득이 되는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본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해 주며 말참견을 하려 한다. 한 술 더 떠 물 위를 헤엄쳐 다닌다거나 물 밑바닥까지 잠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암탉과 고양이 입장에서는 허황되고도 건방진 이야기일 뿐이다. 그 바람에 따돌림을 당해 그 집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방랑 생활을 겪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겨울은 가고 새봄이 온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고, 어느새 성숙해져 아름다운 백조가 된다. 그리고 백조 무리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

이 우화에서 두 가지 형태의 닫힌 세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오리 무리인데 자연적 성격의 닫힌 세상이라 볼 수 있다. 둘째는 ㉠할머니의 집으로 사회적 성격의 닫힌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제시문 (나)

퓨전은 생각만큼 낯선 개념이 아니다. 부대찌개도 퓨전 요리라 할 수 있다. 전통 전골 요리였다 서양의 소시지 등을 혼합했으니 말이다. 마고자는 조선 고유의 한복과 청나라 의상을 결합한 퓨전 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퓨전 아닌 것이 오히려 드물다.

문명은 서로 부딪치고 뒤섞이며 발전한다. 역사는 개방적이고 다른 문명과 섞이는 데 적극적인 국가가 번성했음을 증명한다. 자기네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모두 ‘야만인’이라 경멸하던 아테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도시 국가에 머물렀다. 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보다 뛰어난 문명을 받아들인 로마는 ‘지성은 그리스 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 인보다 못하며,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 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졌음에도’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다. ‘잡종은 순종보다 강하다’는 생물학의 상식이 문화에도 통한다. 서로 섞이는 가운데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사라지는 까닭이다. 퓨전은 강건한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퓨전은 문화 요소가 고갈되어 가는 21세기 인류 문명이 선택한 문화 수단이다. 역설적이게도 퓨전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섞을 만한 재료가 없다면 퓨전도 없다. 퓨전이 유행할수록 고유한 문화 요소들이 더욱 빛을 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제시문 (다)

2003년 10월 13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지하철을 밀었던 사람들, 그리고 2005년 12월 15일, 지하철 7호선 신평역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힘을 합쳐 그날의 작은 기적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이 그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다. “지하철을 함께 밀어 보자고요!” 그 뒤를 이어 지하철에 손을 얹은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의 힘은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던 사람들을 움직였고, 결국 상황을 바꾸었다. 집단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려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 라는 말은 언제나 “인간이 상황을 지배한다.” 로 바뀔 수 있다. 그 일을 해내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획기적이고 거대한 계획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시도로 집단이 변화하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을 바꾸는 일에 언제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황이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 역시 우리이다.

상황의 힘은 때로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인간을 꼼짝도 못 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권위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우리 내면에 상황의 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힘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제시문 (라)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2중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중국의 벽이고, 또 하나는 유럽의 벽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 산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견고한 장벽의 반대쪽에 서 있던 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의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도정을 숨 가쁘게 달려왔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표였건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종 내가 바라본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2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반성에서부터 스스로를 열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항 1] 단한 세상의 특징과 극복 방안

1. 출제 의도

- 문제 (1)에서는 텍스트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단한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다른 텍스트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적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 문제 (2)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텍스트를 분석하여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비판적 평가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I		관련
	성취기준 1	31014-2.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과목명: 국어II		관련
	성취기준 1	31027-1.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1028-3.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31034-2.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류·체계화할 수 있다. 310313-1. 글의 전체 구조나 내용들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1032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 3310323-3. 언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된 글을 쓸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과목명: 독서와 문법		관련	
성취기준 1	310416-1.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310417-2. 글 구성단위 간 관계를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10418-2.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310421-1.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10422-1.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310422-2. 특정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이관규 외 6인	비상교육	2015	178~179쪽	제시문 (가)	X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6인	창비	2016	226~227쪽, 229쪽	제시문 (나)	O
독서와 문법	한철우 외 7인	교학사	2015	195~197쪽	제시문 (다)	O
독서와 문법	한철우 외 7인	교학사	2015	215쪽, 219쪽	제시문 (라)	O

교과서 외						
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의 개념(할머니의 집)과 제시문 (나)의 개념(성공한 퓨전)의 차이를 제시문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논술하는 문제임. 제시문 (가)의 ‘할머니의 집’ 과 제시문 (나)의 ‘성공한 퓨전’ 은 모두 구성 요소(구성원 또는 문화 요소)의 다양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할머니의 집’ 은 닫힌 세상으로 배타성을 가지는 부정적인 개념이고 ‘성공한 퓨전’ 은 공존성을 가지는 긍정적인 개념임을 상호 비교를 통해 논술하는 문항임.
[문항 1]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 1]의 (2)는 ‘닫힌 세상’ 을 ‘열린 세상’ 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내용 이해를 통해 추론하는 문제임. 제시문 (다)에서는 사소한 시도로 집단이 변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에서 나부터 시작해야 함을 찾아야 하며, 제시문 (라)에서는 우리에게는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나를 둘러싼 편견의 장벽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열어 나가야 함을 찾아서 ‘닫힌 세상’ 을 ‘열린 세상’ 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추론하여 논술하는 문항임.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p>제시문 (가)의 ‘할머니의 집’ 과 제시문 (나)의 성공한 퓨전의 공통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할머니의 집’ 과 제시문 (나)의 ‘성공한 퓨전’ 은 모두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준거2	<p>제시문 (가)의 ‘할머니의 집’ 과 제시문 (나)의 성공한 퓨전의 차이점을 통한 이유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할머니의 집’ 은 목적이 우선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만 필요로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원은 따돌림을 당하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제시문 (나)에서 ‘성공한 퓨전’ 은 목적이 아닌,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가 우선하며, 이 요소들이 서로 섞이는 가운데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성공한 퓨전에서는 공존성만 존재할 뿐 배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린 세상이 아니라, 목적이 아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우선되어야 열린 세상이 된다.
[문항 1]의 (2)	
준거1	<p>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닫힌 세상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구성원(미운 오리 새끼)을 구박하고 무시하는 오리 집단인 자연적 성격의 닫힌 세상 무리의 기대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성원(미운 오리 새끼)을 따돌림 하는 할머니의 집인 사회적 성격의 닫힌 세상

	제시문 (다)에서 근거 제시
준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포함한 우리부터 시작하는 사소한 시도로 집단이 변화하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이다. • 우리의 내면에는 상황의 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있다.
	제시문 (라)에서 근거 제시
준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 우리는 의식 속의 장벽으로 생각이 종속되어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을 한없이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의식 속의 장벽에서 벗어나야 한다.

5. 대학 제시 답안

(1) 제시문(가)의 ‘할머니의 집’ 과 제시문(나)의 ‘성공한 퓨전’ 은 모두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제시문(가)의 할머니의 집에서, ‘미운 오리새끼’ 는 오리 알을 낳지 못해 따돌림을 당한다. ‘할머니의 집’ 에는 기대되는 역할을 해야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배타성이 있다. 반면, 제시문(나)의 ‘성공한 퓨전’ 은 먼저 제각각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춘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요소들이 서로 섞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성공한 퓨전’ 에는 배타성이 없다.

열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소의 다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위해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열린 세상이 된다. 제시문(가)의 ‘할머니의 집’ 이 닫힌 세상인 이유는 다양한 구성원이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 우선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구성원을 배타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 글자 수: 465자(공백 포함)

(2) 제시문(가)에서는 나와 다르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구성원을 배타적으로 따돌리는 닫힌 세상을 ‘오리 무리’ 와 ‘할머니의 집’ 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다)와 제시문(라)에는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제시문(다)에서는 한 사람이 시작하는 사소한 시도로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내면에는 상황의 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했다. 제시문(라)에서는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생각인 장벽 때문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의 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있음과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나부터 타인을 이해하고 배타적인 장벽을 깨기 위한 성찰과 반성을 시작해야 한다.

※ 제시답안 글자 수: 496자(공백 포함)